

# 《朴通事新註新譯(一)》

李陸禾\*

<목 차>

1. 緒論
2. 本文

## 1. 緒論

《原本老乞大》<sup>1)</sup>, 《老乞大》, 《重刊老乞大》, 《老乞大新釋》와 《翻譯朴通事》,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諺解)》 등의 이른바 《老乞大·朴通事》系列書는 高麗末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中國語학습을 위해 편찬된 중국어회화 教材이다. 이러한 《老乞大·朴通事》系列書는 中國의 元、明、清의 여러 朝代를 거치면서 그 시대가 가지는 언어의 환경과 변화에 맞춰 일정한 시기를 두고 改修編纂되어 當時의 중국어학습서로 中國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타 文獻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의 것이다.

《老乞大》가 旅行과 交易을 중심으로 한 日常用 初級 會話라면 《朴通事》는 風俗, 世態, 娛樂, 婚喪, 宗教, 賣買, 訟事, 文書 등 당시 중국의 사회적 풍속

\* 光州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原本老乞大》는 1998년 경북대학교 南權熙교수가 최초로 古本《老乞大》를 發見한 후, 정리를 거쳐 2000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출판되고, 같은 해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原刊老乞大研究》라는 書名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2002년에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修訂本(鄭光 主編)을 다시 出版하면서 《原本老乞大》라고 改名을 하였다. 또한 鄭光은 《原本老乞大》(2004년, 김영사)라는 書名으로 解題과 譯註를 하였고, 또 다시 수정판의 《(譯註)原本老乞大》(2010년, 박문사)를 최근에 다시 출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 생활문화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른바 고급 회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언어학적 측면의 가치 외에도 元代에서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당시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朴通事》는 세종 때부터 여러 차례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原本老乞大》와 같은 漢語本 《朴通事》는 전하여 오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翻譯朴通事》이며, 改修本으로는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 《朴通事新釋諺解》 등이 있다.

《翻譯朴通事》(이하 《翻朴》)는 《翻譯老乞大》와 동시기(1515년 경)에 崔世珍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간본은 表紙書名과 版心書名이 「朴通事」上이라 되어 있고 본래는 上中下 3권이었는데, 현재는 上卷(76장)만 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朴通事諺解》(이하 《朴諺》)는 上中下 3卷(상권 76장, 중권 61장, 하권 62장)으로 肅宗 3년(1677년)에 邊遲, 朴世華 등 12명이 편찬한 판본이다. 李聃命의 序文에 의하면 《老乞大諺解》가 《翻譯老乞大》를 참조하여 편찬한 것과는 달리, 《朴諺》은 《翻朴》을 직접 보지 못하고 《老朴集覽》에만 의거하여 《朴通事》漢語文에 대한 諺解(번역)와 註釋의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현재 奎章閣(奎1810)에 소장되어 있다.

《朴通事新釋》은 《朴通事》 系列書 중에서 유일한 純漢語文 간본으로 표지서명은 《朴通事》이고, 版心書名은 《朴通事新釋》이다. 이 간본은 序文이 있고 卷末에 檢察官 邊憲、李湛(李洙)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刊行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刊本은 그 이전의 《朴通事諺解》의 漢語文과 비교하여 보면 106개의 절로 이루어진 기본 줄거리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漢語文의 많은 구절을 보충·수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朴通事新釋諺解》는 金昌祚 등이 본래의 《朴通事》를 대폭 수정하여 《朴通事新釋》을 만들고, 이를 諺解하여 1765년(英祖41년) 3권 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에는 序文이나 跋文 그리고 刊記는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通文館志』 卷八 <什物> 續條에 『朴通事新釋諺解』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新釋朴通事諺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임으로 해서 이 책의 著者와 刊年을 알 수 있다.

新釋朴通事諺解板  
訓長金昌祚等修整 乾隆乙酉箕營刊板

즉 金昌祚 등이 修整하여 1765년(乾隆乙酉)에 平壤(箕營)에서 刊行하였다는 것이다. 『朴通事新釋諺解』는 서울대 一簾文庫, 舊藏書閣(現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은 『朴諺』의 漢語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이다. 『朴通事』系列書의 最古本은 『翻朴』이나 『翻朴』은 上中下 3卷 가운데 上卷만 남아 있어 『朴諺』만이 『朴通事』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朴諺』의 漢語文은 『翻朴(上卷)』의 漢語文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朴諺』의 漱語文이 『朴通事』의 實體라고 추측되고 있다.<sup>2)</sup> 본 논문은 『朴諺』의 漱語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이고, 諺解부분은 단지 참고만 할뿐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朴通事新註新譯』<sup>3)</sup>이라는 題目으로 諸賢들의 高見을 구하고자 한다.

『朴通事』系列書에 대한 既存의 譯註書로는前述한 『翻譯朴通事(上卷)』,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諺解』 등 3종의 翻譯(諺解)書와 註釋本이라 할 수 있는 『老朴集覽』이 있고, 近來의 譯註로는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 第37卷 06年),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中

2) 『老乞大』,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의 漱語 本文이 일치하고 있다.

3) 本稿은 既存의 '譯註'라는 명칭과의 중복을 피하고, 또한 既存의 譯註(諺解)本의 미진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완을 했다는 의미로 '新註'라고 하였다. 또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 直譯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매끄럽게 번역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原文本然의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意譯의 방법을택하였으며, 또한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한글의 번역을 하였고, 또한 '諺解本'과는 차별을 두고자 하여 '新譯'이라고 하였다.

國語文論譯叢刊 18輯 06年), 王霞·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中國研究 第40卷 07년),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 第42卷 08年),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08年)<sup>4)</sup> 등이 있다.

위에서 설명 한 바처럼 기존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朴通事新註新譯>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의 형식을 빌려 재차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王霞·유재원 등이 <朴通事諺解譯註>라는 제목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朴通事諺解》의 총 106개의 단락 가운데 현재까지 제37단락까지만 발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후속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朝鮮朝 崔世珍의 《朴通事諺解》를 비롯한 근래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많은 부분이 미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즉 朝鮮朝 崔世珍의 諺解書에서부터 최근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 보다 완벽한 《朴通事》에 대한 譯註書가 완성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본 譯註 연구는 1973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百部限定版)한 版본을 底本으로 하였고,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 中華書局, 2005年)에 수록되어 있는 點校本 《朴通事諺解》 漢語本을 참고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譯註를 하였다.

- 1) 《朴通事諺解》의 漢語文에 대한 번역과 주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諺解文과 夾註를 참고하기로 한다.
- 2) 諺解文은 신지 않고, 夾註는 本文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한 전부 또는 부분을 【夾註】라고 명기하고 註釋으로 처리하였다.

---

4) 王霞·유재원 등이 현재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는 <朴通事諺解譯註>는, 총 10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朴通事諺解》의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제37단락까지만 발표되고 있다. <朴通事諺解譯註(1)>은 제1단락에서 제6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2)>는 제7단락에서 제13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3)>은 제14단락에서 제20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4)>는 제21단락에서 제30단락까지, <朴通事諺解譯註(5)>는 제31단락에서 제37단락까지만이다.

- 3) 『朴通事諺解』에는 ‘話者’의 구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와 번역의 편리함을 위하여 原文의 내용을 통하여 ‘話者’의 설정이 가능 한 것은 ‘話者’를 설정하여 나타내고, ‘화자’의 설정이 어려운 것은 筆者가 내용을 분석하여 임의로 ‘甲某’·‘乙某’·‘丙某’로 설정하여 표시했다.
- 4) 106개의 단락을 ‘第106話’로 설정하고, 각 단락의 제목은 내용에 맞추어 필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다.
- 5) 아래 註 5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朴通事諺解』 漢語本文에 대한 註釋은 現代漢語로 說明하였고, 用例 또한 原文을 그대로 옮겨놓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아래의 註 21번에서처럼 原文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한글로 설명하는 방식을택하였다.

『朴通事諺解』는 序文, 本文(상·중·하), 『老乞大集覽(상·하)』, 『單字解』로 구성되어 있다. 본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는 전체 106개 단락 가운데 제1단락에서 제4단락가지의 本文에 대한 註釋과 翻譯을 신기로 한다.

## 2. 本文

### 第1話 賞花筵席

甲某：當今<sup>5)</sup>聖主，洪福齊天<sup>6)</sup>。風調雨順<sup>7)</sup>，國泰民安。又逢着這春二三月好時節，休蹉過<sup>8)</sup>了好時光。人生一世，草生一秋，咱們幾個好弟兄，去那有名的花園裏，做一個賞花筵席<sup>9)</sup>，咱們消愁解悶如何！

- 5) 當今：現在，目前。當今，也作“當時在位的皇帝”。《史記》、《漢書》以下書籍中稱為今上，即“當今”之意。明·陳與郊《昭君出塞》【北沽美酒帶太平令】：「還宮奏當今主上。」清·洪昇《長生殿·獻髮》：「全仗你進規箴，悟當今。」(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396쪽)
- 6) 洪福齊天：舊時頌揚人福氣極大。明·吳承恩《西游記》第六十三回：「一則是那國王洪福齊天，二則是賢昆玉神通無量，我何功之有。」
- 7) 風調雨順：指風雨適合農事。
- 8) 蹉過：錯過。也作“挫過”。《朱子語錄》第十三卷：「彼却有事當治，却怕人說道因前怨治他，遂休了，如此等，皆蹉過多了。」(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332쪽)

임금께서는 聖君이셔서, 넓고 큰 복이 하늘과 같고, 날씨가 調和를 이루니, 나라가 융성하고 백성들이 평안하네. 또한 춘삼월 좋은 시절을 만났으니, 이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사람은 한 세상 사는 것이요, 풀은 한 해를 사는 것이니, 우리 친구들 몇몇이 저 이름난 花園에 가서 크게 잔치를 벌여, 시름과 답답함을 푸는 것이 어떻겠는가!

乙某：衆兄弟們商量<sup>10)</sup>了<sup>11)</sup>。咱們三十個人，各出一百個銅錢，共通<sup>12)</sup>三千個銅錢，勾<sup>13)</sup>使用了。着<sup>14)</sup>張三<sup>15)</sup>買羊去。買二十個好肥羊，休買母的，都要羯<sup>16)</sup>的。

여러 벗들이 상의를 하였습니다. 전부 30명이므로, 각자 동전 100개를 각출하면, 총 3천 개 동전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張三에게 양을 사오도록 합시다. 스무 마리의 토실토실한 양을 사는데, 암컷은 말고, 모두 거세를 한 수놈이어야만 합니다.

甲某：又買一隻好肥牛，買五十斤豬肉。着<sup>17)</sup>李四買果子<sup>18)</sup>、拖爐<sup>19)</sup>、隨食<sup>20)</sup>去。

9) 賞花筵席：元大都的人們在重陽節時會舉行的一種宴席名為“賞花筵席”。【夾註】凡宴會，常話曰筵席，文話曰筵會，吏語曰筵宴，蓋取肆筵設席之意。

10) 商量：討論，磋商。

11) 了：完，盡。《醒世姻緣傳》第四回：「柴不見燒就了，米不見吃就無。」（許少峯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701頁）

12) 共通：共，總共；共計。明·魏學洢《核舟記》：「對聯、題名並篆刻文，爲字共三十有四。」通，總共，合計。《水滸全傳》第四十一回：「宋江道：『黃文炳家有多少人口？有幾房頭？』侯健道：『男子婦人通有四五十口。』」按，共通就是“通共”。即“共總，全部”。《金瓶梅詞話》五十九回：「小人把段箱兩箱竝一箱，三停只報了兩停… 通共十大車貨，只納了三十兩五錢鈔銀子。」

13) 勾：“够”的簡字。完足。

14) 着：教，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鎰當酒來。」（許少峯編前揭書，2452頁）

15) 張三：【夾註】三，或族次，或朋友行輩之次，或有官者以職次相呼，或稱爲定名者有之，李四、王五亦同。

16) 羯：閼割過的公羊。即“羯羊”。

17) 着：教，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鎰當酒來。」（許少峯編前揭書，2452頁）

18) 果子：(1) 果實，即現在之“水果”。(2) 即餠子。泛指糖食糕點。宋·周密《武林舊事·市食》：「果子：皂兒膏宜利少…諸色糖蜜煎。」【夾註】果實也，又呼油蜜果，亦曰果子。曰蜜果子，制形如棗。

19) 拖爐：拖爐餅，原名提爐餅，因其是用提爐煎烘而熟的，故得此名。後因用提爐煎烘的工藝比較麻煩，產量亦少，故改爲用平底鍋翻煎，其名因此亦改爲拖爐餅。《西遊記》第四回：「三人坐下，盡情受用，先吃了大饅頭，後吃簇盤、饅飯、點心、拖爐、餅錠、油燂、蒸酥，那裏管甚麼

또 살이 통통하게 찐 소 한 마리와 돼지고기 오십 근을 삽시다. 李四에게 밀 경단<sup>21</sup>)과 타로(拖爐)<sup>22</sup> 그리고 隨食<sup>23</sup>)을 사오라고 합시다.

乙某：酒京城<sup>24</sup>)槽房<sup>25</sup>)雖然多，街市酒打將<sup>26</sup>)來怎麼吃？咱們問<sup>27</sup>)那光祿寺<sup>28</sup>)裏，討<sup>29</sup>)南方來的蜜林檎燒酒<sup>30</sup>)一桶、長春酒<sup>31</sup>)一桶、苦酒<sup>32</sup>)一桶、豆

冷熱，任情吃起。原來孫行者不大吃烟火食，只吃幾個果子，陪他兩個。」【夾註】《音義》云：麵作小餅。

《質問》云：以麥麵和油蜜印成花餅，烙熟食之。

- 20) 隨食：【夾註】《音義》云：與拖爐相似。《質問》云：以麥麵和油作小餅，喫茶時食之，取其香酥也。原本用隨字，故反譯亦用隨字，俗音“취”，今更質之，字作“食+隨”，宜從“취”音讀，今俗亦曰“食+隨餅”。
- 21) 原文의 ‘果子’는 위의 註 18)에서 설명한 바처럼 지금의 ‘파일’과 경단과 같은 ‘단 음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夾註’ 또한 두 가지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문의 번역을 ‘파일’이 아닌 ‘밀 경단’으로 한 것은 ‘拖爐’와 ‘隨食’이 모두 밀가루 병(餅) 종류의 가공 음식이기 때문으로, 즉 종류가 같은 음식의 나열로 본 것이다.
- 22) 原文의 ‘拖爐’는 ‘拖爐餅’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호떡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拖爐餅’은 지금의 江陰(江蘇省 無錫)지방에서 자랑하는 음식의 하나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江陰에서 말하는 ‘拖爐’가 당시의 ‘拖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름을 넣어 벼무린 밀가루 반죽에 냉이와 팔, 대추 그리고 호두 등으로 속을 하여 화로에 넣어 구은 것으로, 짠맛과 단맛이 어울려져 향기롭고 맛이 있다(重用油酥, 食糖, 以薺菜, 赤豆沙, 藉仁, 核桃仁, 猪板油丁等入餡。制成後, 兩面發黃, 香氣撲鼻, 咸甜相融, 清香鮮美, 深具江陰的地方特色)。」라는 글에서 ‘拖爐餅’의 실체를 다수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 23) ‘隨食’에 대한 자료는 ‘夾註’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隨食’은 ‘拖爐’와 같고,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餅)으로 차를 마실 때 곁들여 먹었다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 있다.
- 24) 京城：國都。
- 25) 槽房：釀酒的作坊。也作“槽坊”，“槽坊”。【夾註】釀酒出賣之家，官收其稅。
- 26)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 27) 問：介詞向。《元典章·刑部三》：「因弟李辛六問夢龍取索舊欠二兩，無錢歸還，將夢龍毀罵。」(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335쪽)
- 28) 光祿寺：掌宮廷宿衛及侍從，北齊以後兼掌膳食帳幕，唐以後始專司膳，歷代因之。也作“光祿司”，寺，侍奉之謂。【夾註】光祿寺，在東長安門內，其屬有大官、珍羞、良醞、掌醢四署，掌供辦內府諸品膳羞酒醴及管待使客之事。
- 29) 訂：買，購。明·高則誠《琵琶記》第二十一：「老員外，你請進裏面去休息，待我一霎時叫家僮討棺木來。」(許少峯編 前揭書, 1813쪽)
- 30) 蜜林檎燒酒：括酒和燒酒煮成之混合酒名。《晉江縣志》(清·道光年間)記載：「晉人常飲，惟醇酒，即宋之醇醕及今老醞，其用酒糟蒸造者，爲燒酒；用白麵蒸造者，爲括酒；取白括酒和燒酒煮成者，爲蜜林檎，然皆少。今用番薯造酒，糯米浸話自佳。」“燒酒”，釀造蒸餾爲燒酒，創始於元代之說。明·李時珍《本草綱目》：「燒酒非古法也，自元時始創，其法用濃酒和糟入甌，蒸令氣上，用器承取滴露，凡酸敗之酒皆可蒸燒。近時惟以糯米或黍或秫或大麥蒸熟，和曲讓甌中十日，以飯蒸好，其清如水，味極濃烈，蓋酒露也。」清·雲封山人編次《鐵花仙史》第九回：「元虛道：石灰湯是我相公吃的？可去沽些惠泉三白，或蠶爆豆酒，蜜淋漓香雪燒都好。吃得我相公醉了，與你家姐姐才有些興。」【夾註】《質問》云：初蒸熟燒酒，用蜜葡萄相參浸，久而食之，方言謂之蜜林檎燒酒。又云：以麵爲麯，還用藥材，以燒酒爲漿，下入熟麋肉，待熟

酒<sup>33)</sup>一桶<sup>34)</sup>。又內府<sup>35)</sup>管酒的官人們造的好酒，討<sup>36)</sup>十來<sup>37)</sup>瓶如何？

서울에는 술을 빚는 주조(酒槽)는 많지만, 저잣거리의 술을 어찌 받아 마신다는 말이요? 光祿寺에 가면, 남쪽에서 올라온 蜜林檎燒酒<sup>38)</sup>、長春酒、苦酒 그리고 豆酒<sup>39)</sup>를 각각 한 통 씩을 사옵시다. 또 궐내에서 장인들이 빚은 좋은 술을, 한 열두어 병을 사오면 어떻겠습니까?<sup>40)</sup>

榨之，其味甚恬。又云：如蒸的熱燒酒，將蜜與林檎果參和盛入瓶內，封裏，久而食之最妙。

31) 長春酒：藥材所釀的酒名。【夾註】《質問》云：春分日所造之酒，永久不變其味，方言謂之長春酒。又云：以春分日蒸糜下酒，三日後方榨。

32) 苦酒：【夾註】《質問》云：酒有苦味，少暉蜜。又云：麵多米少之酒，其味最苦。

33) 豆酒：以綠豆制麴所釀的酒。【夾註】《意義》云：菉豆做的。《質問》云：菉豆造爲細糰作酒，取其有味。又云：以菉豆作麴，用粘米作酒，其味殊長。

34) 桶：【夾註】《質問》云：大者容二十瓶，小者用十五瓶。

35) 內府：【夾註】猶言闕內也。

36) 討：買，購。同前註 29)

37) 來：“來”用於數詞或量詞之後，爲約計數目之詞，表示有餘或不足，用法如同“左右”之意。《水滸傳》第五十三回：「李達看那鐵錘時，約有三十來斤。」(王學奇·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清曲辭通釋》 語文出版社，2002年，637等)

38) 原文의 原文 '蜜林檎燒酒'에 대해서 《明代南京飲酒漫談》(《聽我韶韶版》 2007年 8月)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南京의 民間 市廛에서는 팔리고 있는 각 지역의 名酒는 많은데, 품질은 세각각이다. 예를 들면 京師의 '황미주(黃米酒)', '蔚州의 '의이주(薏苡酒)', ... 揚州의 '밀림리주(蜜淋漓酒)', 江陰의 '細酒(細酒)', ... 이상의 술들은, 그釀造방법과 원료에 따라 白酒, 黃酒, 米酒, 果酒, 藥酒 등의 각종 술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때에는 白酒를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白酒는 '燒酒' 또는 '火酒'라고 일컬었다. 燒酒는 조금만 마셔도 취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절약되어 庶民들의 환영을 받았다(於南京民間市肆中所售各地名酒更是繁多，不過品質就良莠不齊了。例如：京師之‘黃米酒’，蔚州之‘薏苡酒’，... 揚州之‘蜜淋漓酒’、江陰之‘細酒’，...就以上這些酒的釀造工藝和原料而言，其實已包括了白酒、黃酒、米酒、果酒、藥酒等各種品類。另外，此時白酒已較爲常見，又稱燒酒、火酒，因其飲少易醉，省時節費較，受社會底層的歡迎。)」 위의 설명에서 '蜜林檎燒酒'는 남쪽 '揚州' 產의 名酒이고，또한當時에는 '燒酒'를 '白酒' 또는 '火酒'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30)번 주석의 설명을 보면, '밀림금(蜜林檎)'은 종류방식으로 빚어진 燒酒와 하얀 누룩(白麵)으로 발효시켜 만든 단술(括酒 : 有脂味的濁酒)을 혼합시킨 술로 보인다。

39) 原文의 '豆酒'는 녹두의 누룩과 찹쌀 등으로 빚은 술로 紹興地方의 두주(豆酒)가 유명한 것으로 보인다. 明 萬歷年間의 《紹興府志》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明에 이르러서도 紹興酒는 宋의 변성함을 이어갔다. 농촌에서는 보편적으로 찹쌀을 경작하여 당시 농경지의 약 6할을 짚하였고, 배를 채우는 식량보다도 술을 빚는데 우선 쓰여졌다. 당시 紹興酒의 품종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의이주(薏苡酒)'、'지황주(地黃酒)'、'즉어주(鯽魚酒)'、'두주(豆酒)'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녹두로 누룩을 만들어 빚은 '두주(豆酒)'가 더욱 유명하여 많이 빚어냈다(明代，紹興酒業繼續保持宋代盛況，農村普種糯稻，約占當時田畝的十分之六，全部用來釀酒，連吃飯的糧食也於不顧，其時紹興酒的花品種很多，有如意薏苡酒、地黃酒、鯽魚酒、豆酒等，其中，以綠豆制曲所釀的豆酒更有名氣，府城釀酒甚多，而豆酒特佳，東師盛行，近省地每多用之。)」

甲某：可知道<sup>41)</sup>好，着誰去討？

당연히 좋지요, 누구더러 가서 사오라고 하지요?

乙某：光祿寺裏<sup>42)</sup>着姓李的館夫<sup>43)</sup>討去，內府裏着姓崔的外郎<sup>44)</sup>討去。

光祿寺는 館夫 李氏에게 구하라고 하고, 궐내는 外郎(書吏) 崔氏를 보내 사오도록 합시다.

甲某：討酒的都回來了。

술 사러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乙某：勘合<sup>45)</sup>有了不曾<sup>46)</sup>？

감합(勘合)<sup>47)</sup>은 받아 왔습니까?

40)當時의 술의 종류에 대해서 『明代南京飲酒漫談』(2007年 8月 『聽我韶韶版』)이라는 글에 “明代에는 술을 빚는 사람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궁중의 御酒房이나 御茶房의 감독을 받아 빚은 ‘大內酒’가 있고, 두 번째로는 光祿寺에서 大內의 처방에 따라 양조한 ‘內法酒’가 있고, 세 번째는 士大夫家에서 빚은 술, 마지막으로는 민간의 양조장에서 빚은 술이 그것이다。(明代酒的品類也相當豐富, 按照釀造者的不同, 大致可分以下四種：一是宮廷中由酒醋面局、御酒房、御茶房所監釀之大內酒；二是光祿寺按照大內之方所釀造之內法酒；三是士大夫家的家釀；四是民間市肆所釀之酒。)”라고 하였다.

41) 可知道：當然。也作“可知”。

42) 裏：助詞。用在句末，相當於“哩”、“呢”。

43) 館夫：是明代徭役的一種，屬於雜役，通常是負責官方公家的宴會。巫仁恕 『明清文人品味的演化與延續-以飲食文化為例』【夾註】應當館驛接待使客之役。『質問』云：府州縣百姓差撥無身役者，做館夫答應使客，待三年更替。

44) 外郎：宋元以來對衙門書吏的稱呼。亦指縣府小吏。元·無名氏 『陳州糶米』第四折：「今日包待制大人陞廳坐衙，外郎，你與我將各項文卷打點停當，等僉押者。」【夾註】外郎，泛稱各衙門吏典之號。俗嫌其犯於員外郎之號，呼外字爲上聲。大小衙門吏典名稱各異。

45) 勘合：官府發給辦差人途中使用驛站、夫馬等憑照。古時符契文書上蓋印信、分爲兩半，當事雙方各執一半，用時將二符契相對驗對騎縫印信作爲憑證。凡調遣軍隊車駕出入皇城官吏馳驛等均須勘合。按，此作討酒之憑證。『金瓶梅詞話』第三十回：「如今我這裏替你查個辦事官，同你到下處，明早好往吏兵二部掛號，就領了勘合，好起身。」(許少峯編 前揭書, 1025쪽)【夾註】『吏學指南』云：勘學，即古之符契也。『質問』云：官府設簿冊二扇，凡事用印鈐記，上寫外字幾號—發行去者曰外號，上寫內字幾號—留在官府者曰內號。

46) 不會：與現代漢語沒有“同”，放在句末構成是非疑問句。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沒有’用作准句末助詞以前，用的是‘不會’。例如：‘那寄書的人去了不會?’（救風塵2）‘沒有’也用於完成或過去的場合。這種用法出現於明代。例如：‘你灌了他些姜湯兒沒有?’（金19）（北京大學出版社, 1987年, 363쪽）

47) 原文‘勘合(감합)’에 대해서 네이버 백과에서는 「조선과의 외교항구 구실을 한 대마도주(對馬島主)와 같은 왜국의 영주들은 조선정부에서 내려준 도장을 사용하여 왜인이나 왜선박의 조선입국허가서를 발부하였는데, 이를 도서라 하였다. 또 조선정부는 왜(倭) 측에 도장을 내주기에 앞서 그 도장을 찍은 장부를 2부씩 만들어 1부는 예조에, 1부는 삼포(三浦)」

館夫：討<sup>48)</sup>將來了。我到那衙門裏，堂上<sup>49)</sup>官說了，便叫將當該<sup>50)</sup>的外郎來寫勘合，就<sup>51)</sup>使印信<sup>52)</sup>與我來<sup>53)</sup>。

얻어왔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서, 堂上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상께서는 당직을 서고 있는 外郎(書吏)을 시켜 勘合을 쓰도록 하였고, 勘合을 하 는 김에 도장도 찍어주었습니다.

乙某：在那裏？拿來我看。

어디 있지요? 내가 좀 보게 가져와 보시오.

館夫：官人<sup>54)</sup>們文書分付<sup>55)</sup>管酒的署官<sup>56)</sup>根底<sup>57)</sup>，支與<sup>58)</sup>竹葉青酒<sup>59)</sup>十五瓶、

에 비치하였다가, 웨인들이 입국할 때 가지고 오는 도서를 대조, 진위여부를 가렸는데, 이를 감합이라 하였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원문의 '勘合'은當時 明代의 官衙에서 전량(錢糧) 등을 출납할 때 쓰던 부절(符節)을 말함이다.

48) 討：此作“弄來，學得”。明·湯顯祖《紫釵記》第四十五齣：「(浣云)老侯，你那討這手段？(侯唱)是老手擅場非僭，你看穿花鳥分明堪驗。」(許少峯編，前揭書，1813等)

49) 堂上官：堂上，指官署長官。《紅樓夢》第九四回：「賈政正要下班，因堂上發下兩省城工估銷冊子，立刻要查核，一時不能回家。」《老殘游記》第十六回：「又聽堂上喝道：‘你還不招嗎？不招我要動刑了！’亦稱‘堂上官’。按，堂上官，明朝沿唐宋官制，設吏、戶、兵、禮、刑、工六部。稱爲尙書，官階二品。其副職稱爲左侍郎、右侍郎，統稱爲堂上官。

50) 當該：當直，該班。元·關漢卿《緋衣夢》第三折：「今日升廳，當該司吏有甚麼合金僉押的文書，決斷的重要事，帶上廳來。」(許少峯編，前揭書，395等)

51) 就：就便。趁便。關漢卿《單鞭奪槊》二末白：「我正要看洛陽城哩，如今領百十騎人馬同段志賢打探，就觀看他洛陽城去。」(藍立莫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137等)

52) 印信：官府的印章符札。《水滸全傳》二三回：「行到廟前，見這廟門上貼着一張印信榜文，武松住了脚譜。」(許少峯主編，前揭書，1397等)

53) 來：置於句中或句末，作襯字或語尾助詞用，只起音節調劑作用。此用法，先秦以來即有之。清·劉淇《助字辨略》卷一：「來，語助辭。」《莊子·人間世》：「雖然，若必有以也，嘗以語我來！」…《三國演義》四九回：「本待一箭射死你來，顯得兩家失了和氣。」…‘來’并‘卽’矣字，訓‘乎’者也…今語亦作哩’。里‘來’，古音一也。(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637等)

54) 官人：官府的人，公職人員。《三遂平妖傳》第十一回：「太尉當日却來得早些個，往從待班閣子前過，又遇着一個官人相揖，這官人正是開封府包待制。」(許少峯編，前揭書，681等)

55) 分付：交付，付給。關漢卿《拜月亭》四【阿忽令】：「把你這眼前、厭倦、物件，分付與他別人請佃。」(藍立莫編著，前揭書，81等)

56) 署官：【夾註】良醞署，卽光祿寺屬官也。有署正、署丞、監事等官。

57) 根底：根，同“跟”。亦作“跟底”。跟前，身邊，面前。《爭報恩》四【側磚兒】：「我這裏急慌忙那身起，大走到向他根底。」(劉堅·江藍生 主編，前揭書，106等)

58) 支與：支給。供應，撥付。前蜀·花蕊夫人《宮詞》第八八首：「月頭支給買花錢，滿殿宮人近數千。」(許少峯編，前揭書，2387等)

59) 竹葉青酒：【夾註】《質問》云：其注甚清，色如竹葉。

腦兒酒<sup>60)</sup>五桶。

官府 관리의 문서를 술을 관장하는 서관(署官)에게 부탁하였더니,<sup>61)</sup>

竹葉青酒 열다섯 병(瓶)과 腦兒酒 다섯 통(桶)을 지급하였습니다.

甲某 : 照依前例該與多少<sup>62)</sup>, 如今<sup>63)</sup>怎麼少了?

관례대로라면 응당 많아야 하는데,<sup>64)</sup> 오늘은 어찌 적은 것 같습니다?

館夫 : 都是官人們克減<sup>65)</sup>了。

아전들이 빼먹었습니다.

乙某 : 罷, 罷, 減不多。一邊<sup>66)</sup>擺<sup>67)</sup>卓兒。

관둡시다,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쪽에다 상을 차립시다.

甲某 : 怎麼擺?

상은 어떻게 차리지요?

乙某 : 外手一遭兒<sup>68)</sup>十六碟<sup>69)</sup>菜蔬<sup>70)</sup>。第二遭十六碟, 榛子、松子、乾葡萄、栗

60) 腦兒酒 : 即“頭腦酒”。一種用肉和雜味配制的酒。明·朱國楨《涌幢小品·頭腦酒》：“凡冬月客到，以肉及雜味置大碗中，注熱酒遞客，名曰頭腦酒，蓋以避寒風也。考舊制，自冬至后至立春，殿前將軍甲士皆賜頭腦酒。”《金瓶梅詞話》第七六回：“到次日，西門慶起早，約會何千戶來到，喫了頭腦酒，起身同往郊外送候巡撫去了。”亦省稱“頭腦”。後泛指好酒。元·宮天挺《范張雞黍》第一摺：“小二哥，打二百錢腦兒酒來！若沒好酒，渾酒也罷！”【夾註】《質問》云：做酒用榦鞠藥材爲藥，久封不動，其色紅而味最純厚。又云：以糯米爲之，酒之帶糟者。又云：好麯好米作酒，成熟粘稠有味，不用參和。

61) 原文‘分付’에近代漢語詞典에서는 대체로 「(1)交付 付給 (2)囑咐, 托付 (3)發落, 處置」으로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2) 多少 : 許多, 好多。此作“偏義復詞”。明·湯顯祖《牧丹亭》二十【紅衲襖·前腔】白：“小姐不在, 春香姐也鬆泛多少。」此“多少”即“多”意。爲反義詞偏用之例。(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 2002年, 333等)

63) 如今 : “現今”、“而今”也。如今與“現在”同。在中古和近古普通的用語中“現今”這樣的意思不用“現在”，而經常是用“如今”、“而今”等。就是在《紅樓夢》中，用“現在”的也非常少，而且多是強調事實確實存在，而不是單純的表示時間。…“現在”常用作“現今”的意義是從清末開始的。(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259等)

64) 原文의 ‘多少’는 數量을 묻는 疑問代詞나 형용사 앞에서 ‘多麼’의 의미를 가지는 副詞로 많이쓰이지만, 앞의 註 62)번의 例文에서처럼 ‘多, 許多’와 같이 쓰이는 경우를 近代漢語에서 볼 수 있다. 이에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多少’를 ‘多’의 의미로 보았다.

65) 克減 : 剋減。克扣, 減削。從應給他人的財物中私自落下若干作爲已有。《水滸全傳》八四回：“去將御賜的官酒，每瓶剋減，只有半瓶；肉一斤，剋減六兩。”(許少峯主編, 前揭書, 1046等)

66) 一邊 : 一側, 一面。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四：“(紅娘)持牋歸，置於粧台一邊。”

67) 摆 : 摆設。安排, 布置。

68) 一遭 : 遭, “周”, “圈”也。一周遭。四周。《水滸傳》第一回：“另外一所殿宇，一遭都是搗椒紅

子、龍眼<sup>71</sup>)、核桃<sup>72</sup>)、荔枝。第三遭十六碟，柑子<sup>73</sup>)、石榴、香水梨<sup>74</sup>)、櫻桃、杏子、蘋果<sup>75</sup>)、玉黃子<sup>76</sup>)、虎刺賓<sup>77</sup>)。當中間<sup>78</sup>)裏，放象生纏糖，或是獅仙糖<sup>79</sup>)。前面一遭燒<sup>80</sup>)鵝、白燂<sup>81</sup>)鷄、川炒<sup>82</sup>)豬肉、火贊<sup>83</sup>)鴿子彈<sup>83</sup>)、燒爛<sup>84</sup>)足旁蹄、蒸<sup>85</sup>)鮮魚、爛<sup>86</sup>)牛肉、炮炒<sup>87</sup>)豬肚。席面<sup>88</sup>)上寶

泥牆。」

- 69) 碟：盛食物等的器具，比盤子小，扁而淺。如：碟子、瓷碟兒。《兒女英雄傳》第二八回：「姑娘一看，只見一個盒子裏面放着五個碟子，一碟火腿，一碟黃燜肉，一碟榛子，一碟棗兒，一碟栗子。」
- 70) 荸蔬：蔬菜，也指“菜肴”。此應作“菜肴”。即煮熟的菜肴。《水滸傳》第一回：「將來鋪下一大盤牛肉，數盤菜蔬，放個大碗，一面箇酒。」
- 71) 龍眼：俗稱“桂圓”，其實累累而墜，外形圓滾，如彈丸却略小於荔枝，皮青褐色。去皮則剔透晶瑩偏漿白，隱約可見肉裏紅黑色果核，極似眼珠，故以“龍眼”名之。【夾註】一名圓眼。樹如荔枝，但枝葉稍小，其子形如彈丸，核如木棲，肉白，漿如甘蜜，五六十顆作穗。荔枝熟後龍眼熟，號荔奴。木棲即本國豆蔻。棲，音患。
- 72) 核桃：【夾註】張騫使西域，得胡桃回，種子中國。後五胡時，避胡字，改名核桃。
- 73) 柑子：柑橘，柑桔。
- 74) 香水梨：又名香水、老香水、老梨、軟兒梨、消梨。
- 75) 蘋果：【夾註】似林檎而大者。《反譯名義》云：梵言頗波果，此云相思果，色丹且潤。《質問》云：形如沙果，其大如梨。
- 76) 玉黃子：李子的一種。又名“玉皇李子、玉皇李、御皇李、御黃子”等。
- 77) 虎刺賓：應是“檳子”。蘋果樹的一種。果實也叫檳子，比蘋果小，熟的時候紫紅色，味酸恬。
- 78) 當中間：即“當中”。正中間，居中。《警世通言》第二八卷：「方丈當中座上，坐着一個有德行的和尚。」(許少峯編，前揭書，398頁)
- 79) 象生纏糖、獅仙糖：即“生纏糖和獅仙糖像”。是貴族宮廷膳食中重要的盤內裝飾物，以糖稀制各種各樣的影像，置於盤中菜點邊緣，類似現代食盤或饌卓中的影花等裝飾物。伊永文著《宋元玩具》(到古代中國去旅行)：「《朴通事諺解》記元大都人們在春天舉行“賞花筵席”時，席面中間要放上“象生纏糖”，這種糖食品實際是一種賞食兼備的玩具。它是用白糖、白芝麻相和，用火煎熬，傾入到木模印內，待涼後，與果實相似。白糖化後，用木印澆成，再用芝麻二合纏糖。“象生”，則是像生物的形狀的意思，“象”譯作“像”。木印，用木刻成物狀，為模範。如獅仙糖，是用糖印做騎獅子的仙人形象，也有用糖印做樓觀、僧佛形象的。有這樣的食品玩具，既可大開胃口，又可一飽眼福。【夾註】象生纏糖，《音義》纏字註云：用白糖白芝麻相和，以火煎熬，傾入木印內，須臾涼後，與果實相似也。(中略)象生者，像生物之形而為之也：象，作“像”。木印，以木刻成物形為模範者也。糖，即沙糖野，煎甘蔗莖為之。【夾註】獅仙糖，以糖印做騎獅仙人之形也，亦有為樓觀僧佛之形者也。」
- 80) 燒：烘烤；曝曬。如：燒豬(燒烤豬肉)，燒鴨(烤鴨)。
- 81) 白燂：“燂”，“焰”的正字，以熱水煮熟，如“白燂”。又，不加任何配料用清水煮曰“白燂”。【夾註】燂，《音義》音燂，誤。以油煎也。
- 82) 川炒：川，把食物放到沸水里稍微一煮。如：川丸子。【夾註】《音義》云：민물에 炒烹豬肉。今按，川炒，鹽水炒也。
- 83) 彈：同“蛋”。《救風塵》二【集賢賓】：「一個個眼張狂似漏了網的游語，一個個嘴盧都似跌了彈的斑鳩。」(劉堅 江藍生 主編，前揭書，69頁)【夾註】《質問》云：鴿子彈移於滾肉湯食之。又云：用內湯在鍋，再加椒料、菜、蔥花、燒火至滾沸，放下鴿子卵，盛之於碗，以獻賓客。

粧高頂挿花。

맨 가장자리<sup>89)</sup> 줄의 열여섯 접시에는 각종 나물요리를 놓고, 두 번째 줄의 열여섯 개의 접시에는 개암(榛子)<sup>90)</sup>、잣、건포도、밤、용안(龍眼)<sup>91)</sup>、호두、여지(荔枝)를 담고요, 세 번째 줄 또한 열여섯 접시로 감귤、석류、향수배(香水梨)<sup>92)</sup>、앵두、살구、사과<sup>93)</sup>、자두、빈자(檳子)<sup>94)</sup>를 놓습니다. 가운데는 설탕을 녹여 틀에 부어 만든 각종 모양의 설탕 과자를 놓습니다. 앞쪽 한 줄은 구운 거위고기(燒鵝)、닭백숙(白燂)<sup>95)</sup>、물에 소금을 넣고 삶은 돼지고기(川炒豬肉)<sup>96)</sup>、익힌 비둘기 알、

- 84) 燻爛：燻，古同“熬”。久煮曰“熬”。如：熬粥、熬藥。爛，因過熟而變得鬆軟。按，燻爛者，熬熟爛也。
- 85) 蒸：用水蒸氣的熱力把東西加熱或使熟。如：蒸餅。
- 86) 煨：火貌。【夾註】《音義》：燨，音熒，平聲。《質問》云：牛肉細切，用椒鹽燨食。又云：以水和醬成湯，放入鍋內，燒至滾沸，方下細切的牛肉，再加椒、醋、蔥花盛供，故曰燨。
- 87) 炮炒：一種烹調方法，即是“爆炒”。將魚肉片等放在鍋或鑊中置於旺火上，迅速攪拌。【夾註】炮炒，用醬和水炒之。《質問》云：如豬肚生切，置於鍋中，用繁火炒熟，方言謂之炮炒。
- 88) 席面：(1)筵席上與主人相對的客位。宋·洪邁《容齋五筆·斯須之敬》：「今公私宴會，稱與主人對席者曰席面。古者謂之賓、謂之客是也。」(2)筵席。元·無名氏《連環計》第三折：「我也備一個小小席面，管待岳丈。」(3)指筵席上的酒菜。《儒林外史》第三三回：「鬧了一會，席面已齊，杜少卿出來奉席坐下，吃了半夜酒，各自散訖。」【夾註】《音義》云：只 痴 褲 褲。
- 89) 原文의 ‘外手’에 대해 許少峯編 《近代漢語大詞典》에서는 「밖에서 구매 등을 전담하는 하인(專管跑外采購等事的僕人)」(中華書局, 2008年, 1906쪽)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誌 10)번에서는 「外手는 본래 하인을 의미하나, 이곳에서는 바깥을 의미하는 ‘外首’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外手’가 ‘外首’의 오류인지 아니면 通假字인지 분명하지 않음」(中國研究 37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近代漢語詞典에서는 ‘外首’에 대한 용례를 찾을 수가 없고, 《現代漢語詞典》(修訂本)에서 「外首, <方> 外頭, 外邊。」(商務印書館, 1996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 90) 原文의 ‘榛子(진자)’는 ‘개암’으로 개암나무의 열매를 말함이다. 모양은 도토리 비슷하며 껍데기는 노르스름하고 속살은 젖빛이며 맛은 밤 맛과 비슷하나 더 고소하다.
- 91) 原文의 ‘龍眼(용안)’은 계원(桂圓)이라고 하고, 말린 것을 용안육(龍眼肉) 또는 복육(福肉)이라고 한다.
- 92) 原文의 ‘香水梨’는 ‘배’의 일종으로 익으면 순황색이며 과육은 약간 짙은 맛이 난다.
- 93) 原文의 ‘蘋婆果’를 사과(沙果)로 번역을 하였는데, 사과는 임금(林檎)의 속칭으로 임금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사과를 ‘蘋果、蘋果’라고 하는데, ‘蘋果’는 ‘苹婆果’의 줄임말로 明代에 비로소 출현되어 쓰였다고 한다. (無名氏《蘋婆果考 - 中國蘋果栽培史之一班》：「蘋果這一名稱却到明朝才正式出現。究其淵源，蘋果是“苹婆果”的簡稱，“苹婆”起初寫作“頻婆”，而“頻婆”又有過“平波”、“平坡”等同音異寫。」(摘自 中國網 百度))
- 94) 原文의 ‘虎刺賓’은 ‘槟子’라고 하는 등급의 일종이다. 사과보다 작고 약간 짙은 맛이 난다고 한다.

푹 고은 족발、생선찜、구운 쇠고기、센 불에 신속하게 익혀낸 돼지 곱 창입니다. 연회석상의 寶粧高頂에는 예쁜 꽃들을 장식합니다.<sup>97)</sup>

甲某：着張三去，叫教坊司<sup>98)</sup>的十數個樂工和做院本<sup>99)</sup>諸般雜技<sup>100)</sup>的來。

張三에게 시켜, 教坊司의 악사 열두어 명과 소리꾼 그리고 놀이패 등을 불러오도록 하시오.

乙某：那冰盤<sup>101)</sup>上放一塊冰，杏兒、櫻桃諸般鮮果，浸在冰盤裏，好生好看。如今却早<sup>102)</sup>有賣的拳杏麼？

화채그릇에 얼음 한 덩어리 띄우고, 살구와 앵두하며 신선한 과일들을 화채그릇에 띄워 놓으면 정말 보기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일러서 권행(拳杏)을 팔까요?

甲某：黃杏未有裏，大水杏半黃半生的有。

黃杏(살구)은 없고요, 아직 익지 않은 大水杏은 있을 것입니다.

95) 原文의 ‘白燂鷄’은 백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燂’를 ‘炸’로 볼 경우, 먹을거리를 뜨거운 기름에 줄여서 익히다(將食物放入熱油中煎熟)로 해석할 수 있지만, ‘白燂’은 위의 註 8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미를 가하지 않은 맹물에 먹을거리를 끓여내는 것을 말한다.

96) 原文 ‘川炒’에 대해 【夾註】에는 ‘민물에 炒烹豬肉(맹물에 익힌 돼지고기)’, ‘鹽水炒也(소금 물에 익히다)’로 설명하고 있는데, 앞의 註 82)에서 설명한바 같이 지금도 끓는 물에 넣어 익히는 방법을 ‘川’이라고 한다. ‘川炒豬肉’에 대해서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中國研究 37권)은 ‘소금물에 끓은 돼지고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炒’자를 ‘볶다’로만 보기 때문이다. 숟 등에 먹을거리(약재)를 넣고 뒤적거리며 익히는 것도 ‘炒’이다.

97) 原文 ‘席面上寶粧高頂挿花’일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 諺解에는 ‘寶粧高頂에 끗출 끗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寶粧高頂’을 화병으로 보았다.

98) 教坊司：中國古代宮廷音樂機構，始建於唐代，稱為教坊，專門管理宮廷俗樂的敎習和演出事宜。一度改名“雲韶府”。宋元兩代亦設教坊；明代改教坊為教坊司，隸屬於禮部，主管樂舞和戲曲。【夾註】教坊司，掌雅俗樂之司，隸禮部，有奉鑾、詔舞、司樂等官；一名麗春院，即元俗所呼拘欄司。

99) 院本：金元時演劇脚本之一種。明清時，亦以泛指雜劇、傳奇。【夾註】《南村輟耕錄》云：唐有傳奇，宋有戲曲、唱諺、詞說，金有雜劇、諸宮調。院本、雜劇，其實一也。國朝，院本、雜劇，始釐而二之。(後略)

100) 雜技：各種技藝表演總稱。

101) 冰盤：(1) 盤內放置碎冰，上面擺列蘿蔔瓜果等食品，叫做冰盤。夏季用以解渴消暑。明·何大夏《苦熱行》之一：「美人冰盤荐朱李，道上行人多渴死。」清·孫枝蔚《古別離》詩：「別君六月中，冰盤浸碧藕。」(2) 指大的瓷盤。《儒林外史》第十五回：「馬二先生舉眼一看，樓中間掛着一張匹紙，上寫冰盤大的二十八個大字。」

102) 却早：尙且，尙自。《三國志評話》上卷：「這公事却早斷不得，如何陽間做得天子。」(許少峯主編，前揭書，1563弩)

甲某：官人<sup>103)</sup>們都來了，將些乾按酒來，就<sup>104)</sup>將那燒肉來。我們先吃兩巡酒，後頭<sup>105)</sup>擡卓兒<sup>106)</sup>。彈的們動樂器，叫唱的根前<sup>107)</sup>來，着他唱。

손님들께서 오셨으니, 마른안주를 내오고, 나오는 김에 구운 고기도 내오시오. 우리 먼저 술을 두어 순배 들고, 나중에 상을 드립시다. 악사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창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창을 하도록 하시오.

乙某：如今擡卓兒上湯<sup>108)</sup>着。捧<sup>109)</sup>湯的都來。第一道<sup>110)</sup>燶<sup>111)</sup>羊蒸捲<sup>112)</sup>，第二道金銀豆腐湯<sup>113)</sup>，第三道鮮筍燈籠湯<sup>114)</sup>，第四道三鮮湯，第五道五軟三下鍋，第六道鷄脆<sup>115)</sup>芙蓉湯，都着<sup>116)</sup>些細料物<sup>117)</sup>。第七道粉湯饅

103) 官人：對男子的尊稱、泛稱。《水滸傳》八回：「董西公，一位官人在小店裏講說話。」按：《夢梁錄》卷十三：“鋪席”：“張官人諸史文籍鋪、徐官人幞頭鋪”此商人之稱。《武林舊事》卷六“諸色伎藝人”記：「棋待詔、金四官人；書會：李大官人；演史：周八官人等。此藝人之稱。」（龍潛庵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年，577頁）按，此作“客人”，即“兄弟們”。

104) 就：就便。趁便。關漢卿《單鞭奪槊》二末 白：「我正要看洛陽城哩，如今領百十騎人馬同段志賢打探，就觀看他洛陽城去。」（藍立黃 編著 前揭書，137頁）

105) 後頭：以後。《元典章·台綱二》：「如今俺省得底勾當不說呵，怕後頭道俺不是去也。」（劉堅 江藍生 主編，前揭書，121頁）

106) 擡卓：【夾註】擡，舉也。進案撤案皆曰擡，謂人所舉也。卓，即本國所謂高足床也。

107) 根前：面前，身邊。根通“跟”。永樂大典戲文《小孫屠》第五齣：「昨晚那孫必達所托之事，已自從本官根前覆過了。」（許少峯主編，前揭書，634頁）

108) 湯：湯菜。

109) 捧：雙手合托。《劉知遠諸宮調》二十：「命衆官排筵，岳夫人親捧金冠霞帔與三娘，不受。」（許少峯主編，前揭書，855頁）

110) 道：量詞，猶遍、趟。

111) 燶：“燶”，古同“熬”。久煮曰“熬”。如：熬粥、熬藥。參看前註 84)

112) 蒸捲：應是“蒸卷”。【夾註】《質問》云：麥麵作成五寸長羔，蒸熟食之。又云：以麵爲之，長疊四折，用籠蒸熟。

113) 金銀豆腐湯：【夾註】《質問》云：豆腐用油煎熟，其色黃如金，白如銀，細切作湯食之。又云：用鷄鳴清同鳴黃相制爲之。今按：鷄鳴，即鷄子也。

114) 鮮筍燈籠湯：【夾註】《質問》云：鮮筍，以筍雕爲玲瓏花樣，空其內，繆肉作羹食之。又云：以竹芽切成寸段，鷄子煮熟，去黃，粧內做湯。

115) 鷄脆：鷄脆骨。鷄爪子中間的部分，又叫掌中寶。

116) 着：添；加。《岳陽樓》二【賀新郎】白：「這師父倒會吃！…第三盞吃個杏湯，再着上些乾糧，都飽了半日。」（劉堅 江藍生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441頁）

117) 料物：香料。【夾註】《事林廣記·食饌類》：細料物，官桂、良薑、華撥草、荳蔻（中略）。右共爲細末用之。如欲出路停久用之者，以水浸，蒸餅爲丸，如彈子大，臨時湯泡用之。今按，漢俗曰臙、交趾曰“細料物”。

頭<sup>118)</sup>。

지금 음식상을 올리고 탕(湯菜)을 올리십시오. 음식(湯)을 나르는 사람은 모두 나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燒羊蒸卷'<sup>119)</sup>이고요, 두 번째로 '金銀豆腐湯'<sup>120)</sup>, 세 번째는 '鮮筍燈籠湯', 네 번째는 '三鮮湯', 다섯 번째는 '五軟三下鍋'이고, 여섯 번째는 '鷄脆芙蓉湯'인데, (드실 때는)요리에 향신료<sup>121)</sup>를 넣으세요. 일곱 번째는 만둣국(粉湯饅頭)입니다.

甲某：官人們待散也，疾快旋<sup>122)</sup>將酒來，把<sup>123)</sup>上馬杯兒<sup>124)</sup>。如今唱達達<sup>125)</sup>曲兒、吹笛兒着。今日個日頭<sup>126)</sup>，咱弟兄們和順的上頭<sup>127)</sup>，皇帝的大福陰<sup>128)</sup>裏，酒也醉了，茶飯<sup>129)</sup>也飽了，古人道：“有酒有花，以爲眼前之

118) 饅頭：包子。《西廂記》二【楔子】：「萬餘斤黑麵從教暗，我將這五千人做饅頭餡。」（劉堅江藍生主編，前揭書，184等）

119) 原文의 '燒羊蒸卷'은 우리의 '수수부꾸미'와 비슷한 형태의 음식이다. 부꾸미는 반달모양의 한 겹이고 기름에 지지지만, '蒸卷'은 밀가루 반죽에 소(양고기 등)를 넣고 돌들 말아 솔에 넣고 찐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먹는 것이다. 소의 종류에 따라 '土豆蒸卷'、'韭菜蒸卷' 등의 명칭을 볼 수 있다.

120) 原文의 '金銀豆腐湯'은 '夾註'의 설명에서처럼, 두부와 계란이 주재료가 되는 요리이다. 현재의 중국에서도 같은 이름의 요리를 찾을 수 있다. 두부와 계란의 색깔, 즉 黃과 白의 색깔을 '金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21) 原文의 '料物'은 음식에 넣는 '香辛料'를 말함이다.

122) 旋：旋，溫酒器。同“鑊”。《水滸全傳》二八回：「武松把那旋酒來一飲而盡，把肉和麵都吃盡了。」（許少峯主編，前揭書，551等）按，旋將酒來，就是“溫酒來”之意。

123) 把：遞，斟。元·關漢卿《望江亭》第三折：「今日是八月十五日中秋節令，對着如此月色，孩兒每與大人把一杯酒賞月如何？」（許少峯編，前揭書，30等）

124) 上馬杯兒：餞行酒。宋真宗於澶淵與寇淮謀退契丹之計，問何人可守天雄軍，寇淮薦參知政事王欽若。退卽召王，諭以意，并斟大杯酒爲之送行，名曰“上馬杯”。見宋魏泰《東軒筆錄》卷一，（摘自 互動百科）。《水滸傳》第九九回：「宋江早擺下送行酒席，又取出兩大包金銀，相贈楊雄、石秀做路費。二人拜受，藏放在包裹裏，吃了几巡酒，宋江把個上馬杯，叮囑一番。」

125) 達達：元、明時漢人對蒙古人的稱號。元·湯顯之《酷寒停》三折：「他道你是甚麼人？我道也不是回回人，也不是達達人，也不是漢兒人，我說與你聽者。」（許少峯主編，前揭書，208等）

126) 日頭：日子。《董西廂》卷一：「沒一個日頭兒心放閑，沒一個時辰兒不掛念。」（龍潛庵編著，前揭書，146等）

127) 上頭：表示原因。常同“爲、以”等介詞配合使用，也說“上”。或作“上起”。徐本《陳搏高臥》四【步步高】：「命不快上遭逢着這火醉婆娘，干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半夜裏觀乾象。」（劉堅江藍生主編，前揭書，278等）又元·無名氏《小孫屠》戲文第九出：「後來因此閑言語上，不會踏上它門。」《水滸傳》第四回：「酒家不瞞你說，因爲你上，就那日回到壯元橋下，正遇着鄭屠那廝，被酒家三拳打死了。」（高文達主編，前揭書，687等）又元·朱凱《昊天塔》一折：「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主編，前揭書，990等）

樂；無子無孫，盡是他人之物。”咱如今不快活時<sup>130)</sup>，做甚麼？

손님들이 곧 돌아가실 것이니, 빨리 따듯하게 데운 술을 가져와서 석별의 술잔을 들도록 합시다. 오늘 타타르의 노래를 부르고 피리도 불었습니다. 오늘은 형제들 화목하고, 나라님의 크나큰 음덕으로, 술도 취하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으니 “술과 꽃만이 날 즐겁게 하고, 자손이 없는 변뇌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즐겁지가 않으면, 뭐가 즐겁겠는가!

## 第2話 開詔差使

親友：好院判<sup>131)</sup>哥，到那裏？

院判께서는 어딜 가십니까？

院判：小人到禮部裏<sup>132)</sup>。

저는 禮部에 갑니다.

親友：有甚麼勾當<sup>133)</sup>？

무슨 공무가 있으신지요？

院判：我有個差使<sup>134)</sup>，堂上<sup>135)</sup>稟<sup>136)</sup>去裏。

128) 福陰：應是“福蔭”。依賴有福分者的庇護。《水滸全傳》二三回：「小人托賴相公的福蔭，偶然僥倖，打死料這個大蟲，非小人之能。」（許少峯主編，上揭書，365頁）

129) 茶飯：宋元時期把菜稱為茶。《東京夢華錄》：「凡店內賣下酒，廚子謂之茶飯。」茶飯，這裏泛指普通進餐的菜和飯，也指筵席。《孝經直解》十八：「孝子沒了父母時分…吃茶飯呵不美，阿的便是他煩惱的情分。三日後索要吃些茶飯。」（劉堅 江藍生 主編，前揭書，39頁）

130) 時：此應作語氣助詞“呵”，表示停頓。

131) 院判：古代中央某些官署的屬官。《初刻拍案驚奇》卷九：「每年春，宣徽諸妹諸女，邀院判經歷兩家宅眷，於園中設鞦韆之戲，盛陳飲宴，歡笑竟日。」此指宣徽院判官。《明史·太祖紀一》：「國月丙辰，友諒陷太平，守將朱文遜，院判花云、王鼎，知府許瑗死之。」此指樞密院判官。【夾註】太醫院有院使一員，院判一員。

132) 裏：猶助詞“呢”。明·缺名《閑銅台》第二折：「（宋江云）學究，一路上辛苦也。（正末云）為朋友有甚麼辛苦來。」（許少峯編，前揭書，1091頁）

133) 勾當：此指“工作、供職、幹事”事情。《老君堂》楔、白：「某今奉聖人的命，教元帥為總兵官，袁天罡、李淳風為諫議大夫，隨軍伍勾當。」（顧學頤 王學奇，前揭書，652頁）

차사(差使)로 나갈 일이 생겨, 윗분에게 알리려 가는 길입니다.

親友 : 甚麼差使?

어떤 差使입니까?

院判 : 開詔<sup>137)</sup>去。

詔書를 奉行<sup>138)</sup>하러 가는 것입니다.

親友 : 甚麼詔?

어떤 詔書입니까?

院判 : 都堂<sup>139)</sup>總兵官<sup>140)</sup>的詔書。

도당(都堂)의 총병관(總兵官)들에게 내리는 詔書입니다.

親友 : 往那個地面<sup>141)</sup>裏去?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지요?

院判 : 往永平、大寧、遼陽、開元、沈陽等處開去。

영평(永平) · 대녕(大寧) · 요양(遼陽) · 개원(開元) · 심양(沈陽) 지역  
으로 갑니다.

親友 : 開詔後頭<sup>142)</sup>，高麗地面裏去麼?

詔書의 봉행을 마치고, 고려 땅으로 가십니까?

134) 差使 : 指差遣。無名氏《貨郎擔》：「聽知的他近日差使出去，我已央人尋他去了。」

135) 堂上 : 指官署長官。參看前註 49)

136) 稟 : 指下對上報告。《三國演義》：「夏侯惇入帳，稟請夜間口號。」

137) 詔 : 卽“詔書”。詔書謂皇帝頒發的命令。

138) 原文‘開詔’에 대해서 《朴通事諺解》에서는 ‘詔書開讀<sup>한</sup>라 가노라’라고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9) 都堂 : (1) 唐尚書省署居中，東有吏、戶、禮三部，西有兵、刑、工三部，尚書省的左右仆射總轄各部，稱爲都省，其總辦公處稱爲都堂。宋、金沿之。(2) 明代稱都察院長官都御史、副都御史、僉都御史。又派遣到外省的總督、巡撫都帶有都察院御史銜，亦稱都堂。《平山冷燕》第十一回：「這個燕生員，乃是本郡燕都堂之子，叫做燕白領。」【夾註】都堂，唐制，尚書省曰都堂。元時亦有尚書省。今按，華制，都察院有左右都御使(中略)...，都御使所在謂之都堂，監察御使所在謂之察院。

140) 擾兵官 : 擾，同“總”。撾兵官，即“總兵官”，明清兩代武職官名。【夾註】各都司各有鎮守，撾兵官一員管兵政。

141) 地面 : 地方，轄境。元·缺名《鴛鴦譜》第四折：「如今來到洛陽地面。張千，是甚麼人吵鬧，與我拿將過來。」(許少峯編，前揭書，430頁)

142) 後頭 : 以後。《元典章·台綱二》：「如今俺省得底勾當不說呵，怕後頭道俺不是去也。」(劉堅 江藍生 主編，前揭書，121頁)

院判：我也往金剛山<sup>143)</sup>禪院<sup>144)</sup>、松廣等處降香去。

난 금강산의 禪院과 松廣 등의 사찰에 예불이나 갈까 합니다.

親友：哥哥<sup>145)</sup>你幾時起身？

仁兄께서는 언제 떠나시려 하십니까？

院判：這月二十頭<sup>146)</sup>起身。

이달 스무날쯤에 떠날까 합니다.

親友：小人也得了紮付<sup>147)</sup>、關字<sup>148)</sup>便上馬<sup>149)</sup>。

저는 公文과 傅祿을 수령하면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院判：聖旨<sup>150)</sup>領了麼？

성지(聖旨)는 받으셨소？

親友：領了。我是愚魯之人，不理會<sup>151)</sup>那裏的法度<sup>152)</sup>，你到本國，好生<sup>153)</sup>照顧<sup>154)</sup>我。

받았습니다。전 우둔한 사람이라, 그곳의 법도를 잘 알지 못하니, 高麗에 가시면, 저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143) 金剛山：【夾註】一名皆骨山，卽自頭山南條也。南至淮陽縣之東、高城郡之西謂金剛山，凡一萬二千峰。

144) 禪院：【夾註】禪院、松廣，佛刹名，皆在金剛山。

145) 哥哥：對年齡相近的男子的尊稱。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二：「却認得是長生，曾人把他衣扯着，底言悄語喚哥哥。」

146) 頭：放在數量詞前後，表示約指。猶差不多。《金瓶梅詞話》十八回：「那是正直七月十二頭天氣，夜子有些餘熱，這潘金蓮怎生睡得着。」（許少峯主編，前揭書，1138頁）

147) 紮付：官府的下行公文。

148) 關字 應是“關支”。舊時謂發放和領取錢物也。析而言之，發給曰關，領取曰支，猶今云發工資、領工資。《京本通俗小說·菩薩蠻》：「都管領鈞旨，自去關支銀兩，買辦什物，打點完備。」《元典章·戶部七·支·職役人關錢物》：「或令關錢人自來關支。」（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423頁）

149) 上馬：起程，出發。

150) 聖旨：帝王的意旨和命令。

151) 理會：知曉，領會，知道。《單刀會》二折：「正末云：“道童門首覩者，看有甚麼人來”，道童云：“理會的。”」（龍潛庵編著，前揭書，795頁）

152) 法度：規範，規矩。宋·陸游《老學庵筆記》卷四：「徐敦立言：往時士大夫家，婦女坐椅子兀子，則人皆譏笑其無法度。」

153) 好生：此作“認真，着着實實”解。《龍圖耳錄》第八七回：「只要三角酒一完，咯噔的就打起哈起來了，飯也不能好生吃。」（許少峯編，前揭書，729頁）

154) 照覲：照顧。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六：「粉箋暗，被塵污，悄沒人照覲子箇。」

院判：咱會<sup>155)</sup>同着一時<sup>156)</sup>行。

우리 함께 갑시다.

### 第3話 築牆

親友：今年雨水十分大，水淹過蘆溝橋獅子頭<sup>157)</sup>，把水門都沖壞了。澇<sup>158)</sup>了，田禾沒<sup>159)</sup>一根兒。看那人家牆壁都倒了。你家牆如何？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노구교(蘆溝橋) 난간의 사자머리 까지 잠기고, 수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벼들이 물에 잠기어 곡식이 한 알갱이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집의 담장들이 무너졌는데, 仁兄 집 담장은 어떻습니까?

主人：我家牆也倒了幾堵<sup>160)</sup>。如今待<sup>161)</sup>秋後<sup>162)</sup>整治，怕甚麼<sup>163)</sup>？

우리 집 담장도 몇 군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가을쯤에나 처리를 할까 하는데,<sup>164)</sup> 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155) 會：便，就。《水滸全傳》十回：「堪笑王倫妄自矜，庸材大任豈能勝？一從火并歸新主，會見梁山事業新。」（許少峯編，前揭書，807頁）

156) 一時：一起，一齊。元好問《塞上曲》：「平沙細草散牛羊，幾簇征人在戍樓；忽見隴頭新雁過，一時回首望南州。」（龍潛庵編著，前揭書，6頁）

157) 蘆溝橋獅子頭：【夾註】蘆溝本桑乾河，俗曰渾河，亦曰小黃河。（中略）有石橋跨於河，廣二百餘步，其上兩旁皆石欄，彫刻石獅，形狀奇巧，成於金明昌三年（後略）。按，蘆溝橋始建於公元1189年，明昌三年（公元1192年）完工。蘆溝橋，亦作蘆溝橋，現北京市西南約15公里處豐台區永定河上。因橫跨蘆溝河（即永定河）而得名。

158) 澕：莊稼因雨水過多而被淹。

159) 沒：就是“陷沒”。猶不見，失去。

160) 堵：量詞，兩柱之間的牆壁。

161) 待：猶“將、要，打算”的意思。《救風塵》一、白：「他一心待嫁我，我一心待娶他，爭奈他媽兒不肯。」（顧學頤 王學奇，前揭書，379頁）

162) 後：時。指時間。《拜月亭》一【金盞兒】：「怕不問時，權做弟兄；問着後，道做夫妻。」（顧學頤 王學奇，上揭書，379頁）

163) 怕甚麼：有何不可。又作“怕做甚麼”。關漢卿《哭存孝》四 李克用白：「息婦兒也，你也辭我一辭去，怕做甚麼？」

164) 原文‘如今待秋後整治’一句에 대해서 《朴通事諺解》에서는 「이제 秋後를 기드터 정치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에서는 「가을걷이가 끝

親友：後日是天赦日<sup>165)</sup>，去角頭<sup>166)</sup>叫幾個打牆的和坌工<sup>167)</sup>來築牆。

모례가 손 없는 길일<sup>168)</sup>이니， 저잣거리에 가서 담 쌓는 기술자와 막일 하는 몇 사람을 불러다 담을 쌓으세요.

主人：你來，我教<sup>169)</sup>與你。多少一板<sup>170)</sup>？

이리와 보시오， 내 시킬 일이 있소. 담 한 판(板) 쌓는데 얼마요？

坌工：二錢半一板家<sup>171)</sup>。

한 판(板)에 두 전(錢) 반(半)이요.

主人：吃我的飯時，錢半一板！

밥을 먹여주면， 한 전(錢) 반(半)에 한 판(板)이겠군요.

友人：你來<sup>172)</sup><sup>173)</sup>，休愛惜那飯。一日三頓家饋<sup>174)</sup>他飽飯吃，着牆板<sup>175)</sup>當着牆

나고 보수하면 되네」(中國研究 37권)이라는 해석을 볼 수가 있다. 諺解는 '待'를 '기다리다'로 보았고, 王震는 '秋後'를 '秋收以後'라고註釋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近代漢語의 특성을 저버린 안일한 번역이라고 본다. 앞의 註 162、163)번에서의 설명처럼 '待'는 '將、要、打算'으로, '後'가 시간을 나타내는 '時'로 쓰이는 用例는 近代漢語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을에나 생각하고 있다' 또는 '지금 가을쯤에나 수리를 할까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전체적인 맥락이 맞는다고 본다.

165) 天赦日：【夾註】春戊寅、夏甲午、秋戊申、冬甲子，謂天道生育萬物而宥其罪也。(後略)

166) 角頭：集市。元·無名氏《謝金吾》三折白：「如今朦朧奏過聖人，將他兩個押赴市曹殺壞了。……來到這角頭上鬧市中。」(劉堅 江藍生主編, 前揭書, 139쪽)【夾註】《音義》云：東南西北往來人烟湊集之處。今按，角頭即通達達道要會之衝，傭力求直之人坌集之所。然漢俗呼市廛亦曰角頭，謂販市者必指角頭而去，故云爾。

167) 坈工：(1)粗活，笨重的勞動。元·無名氏《看錢奴》第一折：「我每日家不會做甚麼營生，則是與人家挑土築牆，和泥托坯，擔水運漿，做坌工生活度日。」(2)指幹粗活的人。《金瓶梅詞話》第三回：「當下月娘、李嬌兒、孟玉樓、潘金蓮、李瓶兒，都用轎子短搬，兩個坌工擡過房子內。」【夾註】分工用力之人。

168) 原文의 '천사일(天赦日)'은 음력에서, 일 년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일. 봄은 무인(戊寅), 여름은 갑오(甲午), 가을은 무신(戊申), 겨울은 갑자(甲子) 날을 말한다. 이날은 일 년 중 최고의 吉日이므로 결혼이나 改築、移葬 등을 한다고 한다.

169) 教：告訴，指使。元·費唐臣《貶黃州》第三折：「如今黃州楊太守，舊時我舉用的，不如寫一書與他，教他不要救濟他。」(許少峯編, 前揭書, 926쪽)

170) 板：八尺爲板。《公羊傳·定公十二年》：「五板而堵。」【夾註】六尺爲板，五尺爲堵。

171) 家：或作「價、介、假」。語助詞。用在數量詞後面，表示數額。《元典章·戶部下》：「在先一引鹽兩定家鈔買來。」(劉堅 江藍生主編, 前揭書, 135쪽)

172)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173) 管的：包管、承擔。“的”，語助辭。

174) 饋：給，替。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鎖當酒來。」(許少峯編, 前揭書, 2452쪽)

175) 牆板：亦作“牆板”。板壁：木板牆。

頭<sup>176)</sup>拴<sup>177)</sup>的牢着，着<sup>178)</sup>石杵<sup>179)</sup>慢慢兒打，不要忙，着<sup>180)</sup>他下<sup>181)</sup>工夫<sup>182)</sup>打。你再和他商量，假如明年倒了時，管的三年不要功錢打。這般要他文書打了時，五十年也倒不得。

아이쿠! 그 밥 한 그릇 아끼지 마시오. 하루 밥 세끼 배부르게 먹이고, 담장에 담 지붕을 단단히 묶고, 달구로 천천히 땅을 다지고, 바쁠 필요가 없으니, 일꾼들에게 정성을 들여 다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仁兄은 만약 내년에 담이 무너졌을 땐, 삼 년 동안 책임지고 노임을 받지 않고 담을 쌓아주는 것으로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담을 쌓으면, 오십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 第4話 關米挑腳

郎中：那挑腳<sup>183)</sup>的，今日開倉麼？

이보시오 짐꾼양반， 오늘 곡창을 엽니까？

挑腳：今日開。關<sup>184)</sup>米麼？

오늘은 엽니다. 쌀을 수령하시게요？

176) 牆頭：亦作“牆頭”。圍牆的上端。(1) 唐·于鵠《題美人》詩：「秦女窺人不解羞，攀花趁蝶出牆頭。」

177) 梗：繫，綁住。

178)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編，前揭書，2452頁)

179) 杵：築牆、築堤時，用來填實泥土的棒槌。

180) 着：教，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鎰當酒來。」(許少峯編，前揭書，2452頁)

181) 下：用，花費。

182) 工夫：花費的精力。《紅樓夢》第二七回：「我還像上回的鞋做一雙你穿，比那雙還加工夫，如何呢？」(許少峯編，前揭書，2452頁)

183) 挑腳：挑夫。《說岳全傳》第一回：「又不去做挑腳，要這草鞋何用！」【夾註】舊本作“趕腳”的。謂趕脚者，負驢取直之人；謂挑脚者，負擔重物求直之人也。

184) 關：支領。明·羅貫中《鳳雲會》第二折：「就館驛度今宵，疾忙教各部下關糧米，對名兒支科草。」(許少峯編，前揭書，675頁) 舊指發給或支領薪餉。參看前註 149)

郎中：我有兩個月俸<sup>185)</sup>來關。

내 두 달치의 녹(祿)을 수령할 것이 있소.

挑脚：關幾擔<sup>186)</sup>？

몇 섬이나 됩니까?

郎中：關八擔。

여덟 섬이오.

挑脚：郎中<sup>187)</sup>馬只<sup>188)</sup>寄<sup>189)</sup>在這人家裏，關出米來，拴<sup>190)</sup>馬錢與<sup>191)</sup>他一捧兒<sup>192)</sup>米便是<sup>193)</sup>。

나리께서 타고오신 말은 이 집에 잠시 맡겨 놓으시고, 쌀을 수령 받으시고 나오시면, 말 묶어놓은 갚으로 쌀이나 한 움큼 주시면 됩니다.

郎中：咱們且<sup>194)</sup>商量<sup>195)</sup>腳錢<sup>196)</sup>着<sup>197)</sup>。

185) 月俸：官員等所得的薪金。【夾註】月俸，元制，官祿每月支給。今此一月四石之俸，以元制考之，乃從九品也。米豆曰祿，鈔錢絹曰俸。

186) 擔：(1)用肩挑。例：擔水。(2)重量單位。舊制一百斤為一擔。(3)量詞。用於成擔的東西。例：一擔糧。【夾註】所負曰“擔”，俗作“担”。今按：關八擔則是八石也。(中略)然今俗皆稱一石為擔，謂任力所勝而負擔之也。字俗作“○”，音“단”。

187) 郎中：(1)舊稱醫生、大夫。(2)對役吏的尊稱。《水滸全傳》第三十回：「兄長，這幾位郎中，是張都監相公處差來取你。」(許少峯編，前揭書，1102頁)按，此作“對役吏的尊稱”。【夾註】元制，郎中正五品，月支米十六石，歲該一百九十石。今此月支四石，則非實郎中，乃是須假號推敬之稱。

188) 只：就。《五燈會元》第三卷：「(麻谷寶徹禪師)師又問：‘婆住在甚處?’婆曰：‘只在這裏。」(許少峯編，前揭書，2398頁)

189) 寄：暫存。元·王實甫《西廂記》第一本楔子：「先夫棄世之後，老身與女孩兒扶柩至博陵安葬，因路途有阻，不能得去，來到河中府，將這靈柩寄在普救寺內。」(許少峯編，上揭書，856頁)

190) 梗：繫，縛住。元·孟漢卿《魔合羅》第一折：「自家李文道便是。開着個生藥鋪，人順口都叫我做賽盧醫。」(許少峯編，上揭書，106頁)

191) 與：給，予。

192) 一捧兒：兩掌合攏後能盛滿的量。(許少峯編，前揭書，2204頁)

193) 便是：用於句末，表示肯定。猶就是。

194) 且：先。《紅樓夢》第五十回：「外頭冷得很，你且吃杯熱酒再去。」(許少峯編，前揭書，1518頁)

195) 商量：討價還價。《宣和遺事》元集：「楊志...將一口寶刀出市貨賣，終日價無人商量。行至日晡，遇一惡少後生要買寶刀。」(龍潛庵編著，前揭書，845頁)

196) 脚錢：搬運費。明·蘇復之《金印記》第十四齣：「來到秦邦，逗留三載，把我拖帶在此。自家要回家去，待二官回來，問他討些脚錢回去。」(許少峯編，前揭書，919頁)

197) 着：同“者”。語尾助詞，猶“吧”。

우리 먼저 짐삯이나 흥정하지요.

挑脚：郎中你在那裏住？

나리께서는 어디에 사십니까？

郎中：我在平則門<sup>198)</sup>邊<sup>199)</sup>住。

난 평측문(平則門) 부근에 삽니다.

挑脚：你與多少脚錢？

짐삯으로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郎中：五十個銅錢一擔家<sup>200)</sup>去來<sup>201)</sup>。

한 짐에 동전 원 개로 해서 갑시다.

挑脚：平則門離這廣豐倉<sup>202)</sup>二十里地<sup>203)</sup>，五十個銅錢一擔時<sup>204)</sup>，却不<sup>205)</sup>虧着我？

平則門은 이곳 광풍창(廣豐倉)에서 이십 리나 되는데, 한 짐에 동전 50 개면, 손해가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郎中：那裏<sup>206)</sup>有二十里地來<sup>207)</sup>？不去時，叫別個。

어떻게 20 리가 된다고 하시오？ 아니 가겠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소.

挑脚：罷，罷，去來。郎中你如今到裏頭，與他一百個斗子<sup>208)</sup>錢，監納<sup>209)</sup>官人們

198) 平則門：即現在北京的“阜成門”就是。“平則門始建於元至元二十二年(1285年)。明初沿用舊稱。平則門於明正統四年(1439年)重修，加築箭樓、瓮城和閭樓，改名為阜成門。

199) 邊：旁，側。

200) 家：或作“價，介，假”。語助詞。用在數量詞後面，表示數額。同前註 172)

201) 去來：就是“去”。“來”，語助詞。

202) 廣豐倉：【夾註】《質問》云：在京師，收天下米糧處也。

203) 地：同“路”，表示“路程”。

204) 時：表示假定的語助詞。多用在假設分句後。按：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中國學論叢》，25輯)《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若你不來時，萬事罷論；若來呵，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表示假設、原因、條件等。

205) 却不：豈非，豈不。元·關漢卿《金線池》第二折：「若他也是虔婆的見識，沒有嫁我之心，却不我在此亦無指望了。」(許少峯編，前揭書，1562頁)

206) 那裏：與現代漢語“哪裏”同。有“怎麼”，“如何”之意，但比之“怎麼”語氣却強。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我那裏吃得這酒！」

207)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參看前註 53)

208) 斗子：管倉掌斗的吏役。元·無名氏《陳州糶米》第一折：「我做斗子十多羅，覓些倉米養

處說，着<sup>210)</sup>斛<sup>211)</sup>起<sup>212)</sup>。斗<sup>213)</sup>量時不勾<sup>214)</sup>。

알았소， 가겠소。나리께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되 값으로 동전 백 개를 집어주시고，감납관(監納官)에게 곡(斛)으로 쌀을 되 주시라고 말씀하시오. 두(斗)로 되면 양(分量)이 모자랍니다.<sup>215)</sup>

**挑脚**：將米貼兒<sup>216)</sup>來對官號<sup>217)</sup>，西邊對籌<sup>218)</sup>去。與他小脚兒<sup>219)</sup>錢，三十個錢一擔家。將碎貼<sup>220)</sup>兒來過籌。

月俸의 쪽지(증서)로 명부(官職)를 대조를 해야 하고, 서쪽으로 수량을

老婆。」【次註】執斗槧量穀之人。槧卽平斗斛木。

- 209) 監納：監督交納。《宋史·職官志五》：「司農寺……乾道二年，詔糧綱有欠，從本寺斷遣監納，情理重者，大理寺推勘。」【夾註】《質問》云：收米糧官名。
- 210)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編，前揭書，2452쪽)

- 211) 斛：容量單位。古代十斗爲一斛，南宋末年改爲五斗爲一斛。

- 212) 起：着。《四春園》四【太平令】：「快將斗大來銅鑄準備，將頭稍定起。」(藍立莫編著，前揭書，209쪽)

- 213) 斗：容量單位。十升爲一斗，十斗爲一石。

- 214) 不勾：即“不够”。“勾”，“够”的簡字。滿，足。

- 215) 原文 ‘你如今到裏頭與他一百個斗子錢，監納官人們處說，着斛起。斗量時不勾’에 대한 《朴通事諺解》에는 「郎中아 네 이제 안허가, 더를一百 낫 말 되는 갑슬주고, 監納하는 관인 들의게 닐려, 휘로 되게 흐라. 말로 되면초디 못흐리라」라고 풀이되고 있다. 즉 ‘뇌물을 주고 휘로 쌀을 되어 주도록’ 요령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지금은 저울로 쌀의 무게를 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나 말을 이용하여 쌀을 되어 사고팔았다. 곡식을 될 때, 평미례(말이나 되에 곡식을 담고 그 위를 평평하게 밀어 고르게 하는 데 쓰는 방망이 모양의 기구)로 고봉으로 올라온 곡식을 뒷박에 맞추어 평평하게 밀어내는데, 뒷박질하는 사람에 따라 짹 밀어내는가 하면, 끝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미는 사람이 있다. 朴通事 시대에서도 같았을 것이다. 사전에 약간의 뇌물을 주어 뒷박으로 장난질을 못하도록 하고, 큰 뒷박(斛)으로 정량의 쌀을 수령하는 장면인 것이다。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에서는 「당중님,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감납관에게 쌀 담는 비용으로 백 닭을 주시고 휘로 담아달라고 하십시오. 말로 담으면 모자랄 것입니다」(中國研究 37권, 227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216) 米貼：“貼”，應是“帖”。寫着字的小紙片。如：字帖兒。【夾註】米貼，月俸之貼。《質問》云：收米，放米計數之標也。又云：是文武官員關支月米時各該衙門出給印信貼兒。

- 217) 官號：官職的名稱。

- 218) 筍：竹、木或象牙等制用來計算或作爲領取物品的憑證。【夾註】《音義》云：出倉之計算。《質問》云：以木爲之。此收放米計數之籌，每米一石，對籌一根。

- 219) 小脚兒：小脚，亦作小脚子。搬運夫。《金瓶梅》五九回：「開了那邊樓上門，就有御車的小脚子領籌搬運貨。」(白維國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583쪽)

- 220) 碎貼：碎，“小”也。碎貼，即“小帖子(兒)”。參看前註 217) 【夾註】《音義》云：出門驗放之貼。

표기한 산가지(計算)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짐꾼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한 짐(擔)에 동전 서른 개입니다. 쪽지(증서)를 가져오고 산가지를 건네주어야 합니다.<sup>221)</sup>

(쌀을 수령하고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짐꾼의 수레에 옮겨 싣는다)

郎中 : 布袋不漏麼?

자루가 새지 않겠소?

挑脚 : 新布袋那裏<sup>222)</sup>怕漏?

새 자루인데 어찌 샐까 걱정하시오?

郎中 : 將車子來載。

수레를 가져와 실으시오.

挑脚 : 那的<sup>223)</sup>有四個小車兒<sup>224)</sup>, 一車兩擔家推將<sup>225)</sup>去。

저기 외발수레 네 대가 있는데, 수레 하나에 두 짐(擔)씩 실어 가겠습니다.

郎中 : 不要小車, 只<sup>226)</sup>着<sup>227)</sup>大車上裝去, 千零不如一頓。

작은 외발수레 말고, 큰 수레에싣고 갑시다. ‘작은 것 여러 개가 큰 덩어리 하나만 못하다’<sup>228)</sup>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것으로 한 번

221) 原文‘將碎貼兒來過籌’에서의 ‘過’는 ‘送, 紿, 傳, 遞’ 등의 의미도 가지므로 이에 ‘건네다’로 번역을 하였다. 언해 또한 「존테즈 가져와 사스디 내라」와 같이 ‘내다’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수령한 쌀의 수량을 적은 댓가지를 전네야 참고에서 밖으로 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았다.

222) 那裏 : 與現代漢語“哪裏”同。有“怎麼”, “如何”之意, 但比之“怎麼”語氣却強。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 我那裏吃得這酒！”

223) 那的 : 那, 那箇。《元典章·禮部六》：“除那的以外, 不揀甚麼差發休與者。”

224) 小車 : 【夾註】一輪車也, 卽車轎 轛。

225) 將 :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226) 只 : 就。《盛世恒言》二一卷：“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 只在中原之地, 度三千餘人, 興俺道家。”(許少峯主編, 前揭書, 1494쪽)

227) 着 : 此作“用”。同前註 179)

228) 原文‘千零不如一頓’의 출처는 알 수가 없으나, 「千零이 一頓만 izard 못 흠니라」라는 諺解를 볼 수 있고, 《翻譯老乞大》에서도 「즈믄 땐거시 혼 무들기만 혼디 몬흔니」로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 갑시다.

### <参考文献>

####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訳解』, 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訳解』, 亞細亞文化史(影印本), 1973.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 中華書局, 2005.  
 錢南揚 著, 『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 臺灣: 華正書局, 1990.  
 王學奇等 校注, 『關漢卿全集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0.  
 李小強、王小忠 注釋, 『西廂記』, 中國文聯出版公司, 1997.  
 劉堅、蔣紹愚 主編,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 商務印書館, 2002.  
 王士點、商企翁(元), 『秘書監志』, 百度(인터넷)電子版.

#### 詞典類

- 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  
 張相, 『詩詞曲語辭彙釋』, 中華書局, 1991.  
 張相, 『詩詞曲語辭彙釋』, 上海古籍出版社, 2009.  
 顧學頓、王學奇, 『元曲釋詞』 卷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顧學頓、王學奇, 『元曲釋詞』 卷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顧學頓、王學奇, 『元曲釋詞』 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顧學頓、王學奇, 『元曲釋詞』 卷四,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  
 劉堅、江藍生 主編, 『宋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9.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  
 許少峯,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知識出版社, 1992.

- 吳士勛、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
-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1999.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1982.
- 張惠英, 《金瓶梅俚俗難詞解》,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3.
- 《中朝詞典》, 中國民族出版社, 1986.
-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 編, 《現代漢語詞典(修訂本)》, 商務印書館, 1986.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 《現代漢語詞典(修訂本)》, 商務印書館, 2001.
- 王鏗、曾明德, 《詩詞曲語辭集釋》, 語文出版社, 1991.
- 王鏗, 《詩詞曲語辭例釋》, 中華書局(增訂本), 1991.
- 王鏗, 《唐宋筆記語辭彙釋》, 中華書局(增訂本), 1990.
- 王鏗, 《宋元明市語彙釋》, 中華書局(修訂增補本), 2008.
- 蔣禮鴻 主編, 《敦煌文獻語言詞典》, 杭州大學出版社, 1994.
- 蔣禮鴻 著, 《敦煌變文字義通釋》,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5.
- 藍立莫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
- 李法白、劉鏡芙 編著, 《水滸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9.
- 張永言 等編, 《簡明古漢語字典》, 四川人民出版社, 1991.
- 卜鍵主 編, 《元曲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1.
- 史東, 《簡明古漢語詞典》, 雲南人民出版社, 1985.
- 王學奇、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清曲辭通釋》, 語文出版社, 2002.
-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中華書局, 1991.
-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地圖出版社, 1982.
- 謝紀鋒 編纂, 《虛詞詁林》,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 楊樹達 著, 《詞詮》, 中華書局, 1990.
- 廖珣英 編, 《全宋詞語言詞典》, 中華書局, 2007.
- 陸澹安 著, 《小說詞語語彙釋》, 上海錦綉文章出版社, 2009.

## 著書類

- 呂叔湘 著, 江藍生 補, 《近代漢語指代詞》, 學林出版社, 1985.
- 胡安竹 等編, 《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1992.

-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
-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
-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
- 香坂順一 著,江藍生、白維國 譯,《白話語彙研究》,中華書局,1997.
- 香坂順一 著,植田均 譯,《水滸詞彙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
-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
-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
-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
- 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虛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
-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
-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 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
- 房玉清 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
- 呂叔湘主 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
-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
- 日・青山定雄 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
-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
-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
-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
-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
-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

- 慎鏞權,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語文學》第48輯, 2006.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
- 拙稿,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第22輯, 2008.
-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
- 拙稿,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
- 拙稿,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
- 拙稿,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刊》27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詁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詁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
- 맹주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 맹주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鄭旭, <老乞大의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

###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萬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個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遊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

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제재확정	출간
2011.6.21	2011.7.24	2011.8.14	2011.8.20	2011.8.31